



뽕뽕브릿지에서 전시중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은경 작가.

환경과 인간 '상반된 시선'

“관객들 이야기 끌어내고 싶어”

지난해와 올해 전시장에서 가장 자주 접한 이가 김은경 작가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회화 작업을 병행하는 그의 작업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지난해 이강미술관에서 열린 '지구와 박물관'전에서 처음 만난 'A와 B', 드영미술관 초대전에서 선보인, 꿈을 소재로 한 '심해어' 등이 인상적이었다.

2021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로 활동중인 김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나와 고래의 지구'에도 작품을 출품중이다. 부지런한 스물 여섯 청년작가의 행보를 눈여겨보게 된다.

김 작가의 첫번째 개인전 '그것은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12월4일까지)는 최근 꾸준히 작업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회화, 설치 작품으로 풀어낸 전시다.

전시장 '뽕뽕브릿지' (서구 월산로 268번길 14-36)는 공간과 작품이 잘 어우러지는 현장이다. 낡은 주택을 개조한 전시장은 김 작가가 개인전을 구상할 때부터 전시공간으로 생각했던 곳이다. 1층과 2층으로 전시장이 분리된 점이 환경에 대한 '상반된 시선'을 보여주기 좋겠다고 생각했다.

"1층은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환경주의자의 입장을 보여준다면 2층은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김은경, '뽕뽕브릿지' 서 개인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작품 눈길

보여줍니다. 우리는 환경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들죠. 양 극단의 이야기를 펼쳐놓으면서, 관객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첫 작품 '울타리 위에서'는 회화 작품이다. 5m길이의 나무 판넬 위에 독수리와 달팽이 등을 등장시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또 다른 5m 크기의 작품은 2층에 설치된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 작품은 마치 영화를 보듯, 리모컨을 이용해 관람자가 원하는 부분에 조명을 비춰가며 감상할 수 있는 점이 흥미롭다. "영화는 한번 지나가버리면 끝나지만, 인물이 장면을 선택해 보고 싶은 화면에 조명을 비추므로써, 그 상황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구상한 장치다.

대형 4단 폴리카보네이트 박스에 이끼를 채워놓고 불을 밝힌 설치 작품은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끼 타워'의 모습을 재구성한 것으로 환경의 회복과 회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아무래도 김 작가를 대표하는 작품은 2층에서 만나는 두 점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던 그는 안 슈바크마이어의 '대화

의 가능성-불모의 대화'를 보고 스톱모션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스톱모션 작업은 공력이 많이 든다. 이야기를 구상해 스토리 보드를 완성한 후 대사를 정하고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배열할까 확정한다. 이후 1초당 10-20컷트가 들어가는 프레임 하나하나를 촬영한다. 독학을 하던 초창기에는 3분짜리 작품 한편을 촬영하는데 6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돌이나 비정형적인 무생물들이 많다. 어려서부터 책상 서랍에 눈을 그려 붙여놓는 등 사물에 눈이 달린 캐릭터를 좋아했던 그는 무생물들을 끌어와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번 신작에서도 돌을 의인화한 토론폰자들이 등장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애니메이션은 스토리를 풀어놓는 장르라 그의 작업에서 돋보이는 건 '공공무진한 이야기'다 "일상생활이나 뉴스에서 소재를 많이 찾습니다.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 어떤 모순적인 상황들에 관심이 가죠.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1년만에 환경에 대한 생각과 시선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변화의 지점들을 염두에 두고 작업했습니다."

스톱모션은 장르 자체가 판타지를 구현하기 좋다. 김 작가가 앞으로 들려준 풍성한 상상력의 세계와 이야기의 바다를 기대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폴치넬라' 전막공연이 25일 빛고를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폴치넬라'

K아트, 내일 빛고를시민문화관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의 발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K아트(예술감독 박승유)는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빛고를시민문화관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폴치넬라' 전막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인다.

1920년에 만들어진 작품 '폴치넬라'는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안무가 레오니드 마신, 화가 파블로 피카소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작품이다. 발레작품으로는 특이하게 성악과 함께하는 관현악곡,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어 다채롭고 매력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연출은 조가영이 맡았으며 안무는 김광진이 담당한다. 무대에는 서울시발레단과 그라짜야발레단을 비롯해 소프라노 박경숙, 테너 추현우, 바리톤 손승범 등이 오른다.

한편 K아트는 2016년 창단, 참신한 공연기획과 아이디어로 다양한 공연장르를 시도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해 스트라빈스키의 종합예술극 '빙사이야기'를 광주에서 초연했고 지난 달 브루스 아돌프의 2개의 음악극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선을 보여 관객들과 지역예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석 1만원. 문의 010-5811-61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Jazz 그 해 마지막 가을'

'순수' 공연, 내일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폴리곤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개해온 '순수'가 오는 25일 오후 7시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폴리곤에서 2021년 시즌 네 번째 공연 'Jazz 그 해 마지막 가을'을 선보인다.



베이스 한수정



드럼 원익준

이번 공연은 광주 출신 작곡가 정주를 위한 헌정공연으로 정주의 곡을 재즈로 편곡해 선보이는 자리다. 재즈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친근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공연에서는 김소월 시 '산유화'에 정주가 곡을 붙인 '산유화'를 시작으로 정주 시 '땃목군의 노래', 박세영 시 '해당화 붉게 피었네', 김소월 시 '가는 길' 등을 들려준다. 공연의 대미는 정주 시 '여기가 살기 좋은 고향이라네'로 장식한다.

무대에는 드럼 원익준, 피아노 장성훈, 베이스 한수정, 비올라 정성희, 보컬 김희선 등이 오른다.

한편, '순수'는 지난 8년 동안 양림동 근대역사문화유적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공연으로 주민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매 공연마다 장소와 인물에 얽힌 스토리를 소개해 문화, 역사 체험을 함께 제공해 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복된 새해를 염원합니다

이창훈 개인전, 25일~12월1일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신년의 복을 기원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화가 이창훈 작가 초대전이 25일부터 12월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열린다.

'은유와 해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새해에 좋은 소식이 많기를 기원하며 상서로운 기운을 전하는 까치호랑이를 만나는 기획이다. 전시에는 복을 부르는 까치호랑이와 어린이이 시리즈, 도시의 배에로, 투우를 주제로 한 작품 30여점이 나왔다.

까치호랑이는 17-19세기 민화에 많이 등장한다.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작품들은 조선 후기 우리민족의 넉넉한 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안함을 전한다.

전시에 나온 작품들은 이 작가 특유의 붉은 색조와 자유로운 선들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기운을 전달한다. 작가가 자주 화폭에 등장시키는 아이들과 도시의 배에로가 호랑이와 어우러지기도 하고, 도도한 여성이 호랑이와 함께 포즈를 취하기도 한다.

작가는 모두의 행운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호랑이 그림으로 일년 열두달을 짝 채운 달력도 제작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중앙대 일반대학원 한국화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지금까지 10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문화예술상 허백련특별상(2015) 수상,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레지던스 제11기 입



'까치 호랑이'

주작가(2019)로 활동했다.

그림세백, 아트펀, 예맥회, 전통과형상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전남대에 출강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를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